

의료시장 개방과 병원의 대응자세

구자룡/동아일보 과학부 기자

내년 1월 1일 의료시장에 대한 외국인
의 투자가 전면 개방된다. 우리나라
의 의료시장 개방은 우루과이 협상 타
결 이전에 재무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이
미 예고되었던 바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개방은 외국의 자
본이 국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다.

그것은 병원이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
야 하고 병원의 입장에서 운영해온 지금
까지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각급 병원에서선 환자의 대기시간
을 줄이고 병원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
기 위한 서비스 경쟁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병원이
달라지려는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 서비스 경쟁 및 환자의 편의 증
진을 위한 노력은 3가지 요인이 상호작용
을 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지난 '89년 시작된 전국민 의료
보험제도이다. 과거에 「부르는 게 값」이

던 호시절은 가고 세세한 의료보험료 지
급기준에 의해 보험항목에 해당되지 않
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고가
의 일반진료라는 양해하에 진료를 하든
지 아니면 보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
이다. 그 대상도 일부 재소자나 군무원을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는 일
본 등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
가 드문 「통제형 의료제도」로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의료발전을 저해한다는 불만
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병원의 문턱을 획
기적으로 낮춘 제도로서 일부 외국 국가
들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둘째는 일부 재벌들의 병원참여이다.

현대 중앙병원이 현재 1천 병상에 또다
시 1천 병상을 증설해 동양 최대의 병원
을 겨냥하고 있는가 하면 삼성 의료원,
대우 등이 5백~1천 병상의 대형병원을
잇달아 짓고 첨단의료시설로 환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의 대학병원들로서는 재벌과 같은
외부 자본충당은 어렵기 때문에 신설 재

별 병원들과의 경쟁에 긴장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통에 각종 서비스 상품을 추가해 환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

경희대병원이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일반인들의 호응을 받아온 차병원과 결합,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치열해진 병원간 경쟁이 낳은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차병원은 대학병원이라는 외투를 걸치고 경희대병원은 차병원이라는 두툼한 옷을 한 겹 겹쳐 입음으로써 경쟁에 따른 추위를 이겨내겠다는 것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양측의 기본 생각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적으로 병원간 경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때에 대외 의료시장 개방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쟁의 폭과 깊이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환자의 인내를 강요하며 지속되어온 각종 병원의 불편 불만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외부의 경쟁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물려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다만 고가의 의료장비와 시설이 무분별하게 유입됨으로써 국민의료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또 유입되는 외국자본에 의한 의료 서비스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급 의료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 진료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회적 위화감을 증대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는 외국의 의사가 국내에서 개업을 하거나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지는 못하고 다만 공익법인의 형태로만 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한이 남아 있다.

또 외국에 비해 낮은 국내의 의료수가가 일종의 보호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병원경영전문회사들이 국내 의료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국내에 일정한 지점을 마련한 후 외국의 유명병원으로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내 의료시장 침투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태국이나 인도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환자유치 에이전트」의 활동으로 선진국으로 진료를 받으러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간 경쟁 및 의료시장 개방을 보는 일반 국민들은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내의 병원들이 경쟁에 밀려 외국의 의료기관에 환자들을 빼앗기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병원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하면서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우루과이 협상 타결에 따라 각 분야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와 같다고 할 것이다. †